

Life is Good

KOSPI 8,476pt(+3.6%), KOSDAQ 1,075pt(-2.7%)

해외 상황

반도체 차익실현에도 신고가 경신

- 전일 미국 주식시장 또다시 신고가 경신. 1) 4월 PCE 물가 예상치 부합 2) 미국-이란 휴전 연장 합의 보도 라는 두 가지 호재 발생. 유가, 금리, 달러 동반 안정 &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델 예상치 상회 실적 및 AI 서버 수요 기대감 유지. 시간외 급등

수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변화된 흐름, 연기금 오버행 우려는 감소

- 연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확대 후 4/22 이후 최대규모 순매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오버행 우려도 감소 → 국내 주식시장 방향성에 호재로 판단. 금일 순매수 주체는 금융투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수급 쏠림 극도로 심화되며 SK하이닉스 거래대금 23조원 삼성전자 17조원 수준. 양 종목에 집중된 매매 비중은 과거 20년 내 최대치. 주간 개인 순매도/매수 상위 ETF 확인시 상위권에 단일종목 or TOP2 ETF 포진. 하위권에 반도체 ETF(소부장 포함) 포진. 반도체 소부장 수급 유인 여력 악화 요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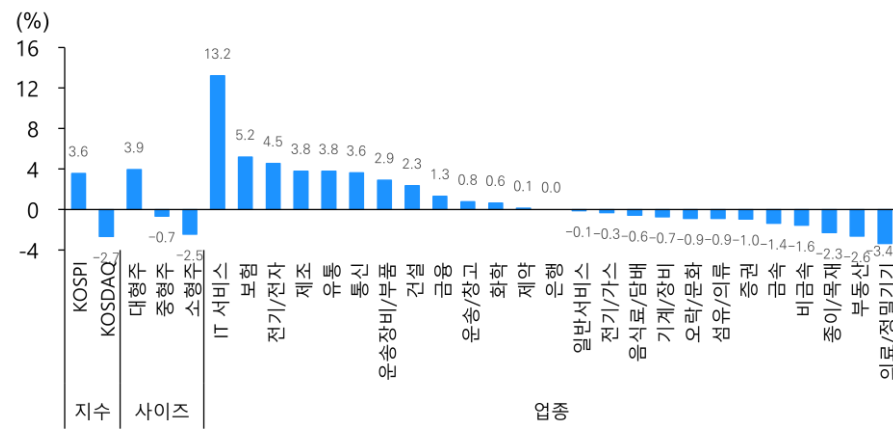
기쁘다 젠스황 오시네 외치며 신고가 경신

- 금일 KOSPI, KOSDAQ 각각 +3.6%, -2.7% 등락. IT 이익 주도력 지속되는 상황에, 수급까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ETF)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 이익+ 수급 모두 KOSPI에 유리하게 작용. 다음주 젠스황 방한에 따른 로봇 모멘텀 부각되며 일부 로봇 테마는 반등했으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KOSPI 대형주 대비 이익 모멘텀도 부족한 가운데 ETF 자금도 지속 유출. 이에 따라 ADR 팬데믹 이후 최저치 기록. 그럼에도 KOSDAQ RSI(14일) 39.8, 여전히 과매도권 진입은 아님. 현재처럼 경기선인 120일선 정도 지지받을 전망.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 되더라도 KOSPI 대형주 순매수, KOSDAQ 순매수 주체인 개인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전망, 순환매를 기다릴 KOSPI 낙폭과대 업종이 너무 많기 때문
- 1) **로봇(LG, 현대차, 삼성 Let's Go)**: 젠스황 다음주 방한 일정에서 LG, 네이버 등과 피지컬 AI, 클라우드, 로보틱스 협력 논의 가능성. 엔비디아는 최근 한국 로봇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 지속 언급. 제 2의 간부회동 기대(그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 매수했다면). 4월 말에는 젠스황의 장녀 매디슨 황이 두산로보틱스 방문. AI/로보틱스 협력 논의 진행 (LG전자 상한가, 현대오트모에버 +24.8%, 로보티즈 +11.3%)
- 2) **MLCC**: 추론 Decode 단계에서의 병목이 지속되며 메모리 수요 증가와 함께 모듈을 실장하는 고부가 기판의 필요성 부각. 추가 판가 인상 기대감 반영하며 급등. CPO와 Advanced Packaging의 발전은 기판의 추가적인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를 요구하나 현재 증설 예정인 물량 감안해도 공급 부족 지속될 전망 (삼성전기 +15%, LG이노텍 +28.6%, 대덕전자 +15.8%)
- 전략) 반도체 이익 주도력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반도체 + 호실적 업종 구성으로 알파 추구 전략이 유효. 단, 5월의 수급 쏠림 이벤트는 대외 변수 지속되는 상황(지정학적 갈등)에서 이익이 확실한(IT) 업종을 찾고 있는데 수급 이벤트(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까지 발생했기 때문. 따라서 대외 변수 안정화 기대 커졌고, 이익추정치 상향폭 둔화될(7월 실적 이전까지) 것이며 ETF 출시 이벤트도 지나간 6월은 순환매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 여전히 매력적인 업종은 산업재(조선, 방산)와 2차전지 그리고 증권 업종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23,687	-3,002
외국인	-10,421	-143
개인	-14,044	3,097
거래대금	737,338	120,368

일간 수익률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